

‘ 풍성한 크리스마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소식

‘ 성탄절 준비 ’



이번 한 달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는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부활절처럼, 한국에 성탄절 현수막을 주문하여서 교회 바깥에 게시했습니다.

성탄절을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미국 명절 정도로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이 적힌 현수막을 통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한 12월 첫째 주 주일은, 예배 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도지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성탄절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흑백으로 전도 그림책을 제작 했었는데요. 올해는 컬러로 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소책자 제작을 담당한 니시무라 상은 전도지 제작에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매주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소책자는 주변 이웃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은혜의 성찬식 ’

12월 둘째 주 주일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에 변화가 있었던 가운데, 행해졌던 성찬식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번 성찬식은 이준호 선교사에게 있어서도 처음으로 집례했던 성찬식이었습니다.

사실, 성찬식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은혜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영향으로 개인용으로 나누어진 성찬 키트를 준비했지만, 제 마음에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교회 집사님을 도와 성찬식을 준비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찬식을 준비하고 성찬식을 집례하는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전부터 예식서를 보며 성찬식을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찬의 은혜를 나눌 때, 그 감격과 감사는 배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오랜만에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도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찬식에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전도로 준비하는 성탄절 ’



성찬식 이후,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 전도를 했습니다. 한 주 전에 제작한 전도지를 들고 이웃의 집을 찾아가,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는 전도를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교회 가까운 이웃에게라도 찾아가겠다며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룩한 성찬식 이후,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제 입을 통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절’



12월 19일 주일,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는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기쁨과 나눔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탄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성탄예배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성회에서 특별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습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도 한국어와 일본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민하도 엄마 품에 꼭 안겨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를 위해 한국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양말과 한국 김을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보내주신 현금을 통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식사할 수 없지만, 도시락을 통해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도시락은 오카노 상의 가게에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귀한 나눔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디저트용 쿠키와 지난 마치카도 뮤지엄 때 제작한 드리퍼쥬 장식품들도 헌물해주셨습니다. 예배 후, 두 손 가득히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풍성한 성탄절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성도들은 교회 SNS에 축하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를 위해 귀한 현금과 선물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니시카와 상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카코가와에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찾아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원해서 몇 차례의 시험관아기를 시도했으나 유산이 되어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그 절박함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임신을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니시카와상은 다시 임신 시도를 하게 되었지만, 만약 또 실패하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연히 펼친 성경속에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렘29:11)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니시카와상은 말씀을 통해 혹 실패하더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5개월 쯤 임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신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반을 생성해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입덧이 심하고 조산기가 있어 거의 외출을 삼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하기까지 여러분의 중보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또한 믿지 않는 니시카와상의 남편도 하나님을 믿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특별기도제목



▲ 심방 중 모습

가족 소식

민하는 요즘 하원 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국계 엄마를 둔 ‘쇼타’라는 친구입니다. 쇼타의 엄마가 민하의 한자 이름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황선교사에게도 민하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붙여 주신 것 같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쇼타도 민하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되기를, 그래서 카코가와메구미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생기게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쇼타의 엄마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또한 이사할 집은 계속 찾는 중입니다.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발표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일본 깊이 알아가기 -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 선교의 흔적, 이수정의 친필 휘호'

카코가와에서 자동차로 두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한국인에게도 관광지로 유명한 교토(京都)가 있습니다. 교토 동쪽에는 도시샤대학 및 일본조합교회의 창설자인 니지마 조(新島襄)목사가 살았던 구 저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지마 조 구 저택에는, 한국인 최초의 성서번역자 이수정(李樹廷)의 친필 휘호와 그를 신앙으로 이끌었다고 추정되는 산상수훈 족자가 보관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은 1882년 수신사 박영호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으로 왔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지내던 중,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인 농학자 츠다 센(津田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츠다 센의 방에 걸려 있던 한문으로 쓰여진 산상수훈 족자를 보고 그 내용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후 츠다 센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 4월 29일, 도쿄의 로게츠초(露月町)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수정은 그 해 도쿄에서 열린 제3회 전국(일본)기독교도 대친목회에 참석하여 한국어로 공중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수정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조선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 Loomis) 목사의 제안으로 한국어 성서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885년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라는 이름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요코하마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성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지내던 때에, 이수정의 성서번역 흔적을 찾아 요코하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교토의 니지마 조 구 저택에 이수정의 친필 휘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좀처럼 기회가 잡히지 않았으나 다행히 긴급선언이 해제되고, 때마침 도시샤대학 창립기념일에 니지마 조 저택의 내부를 공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의 친필 휘호를 보기 위해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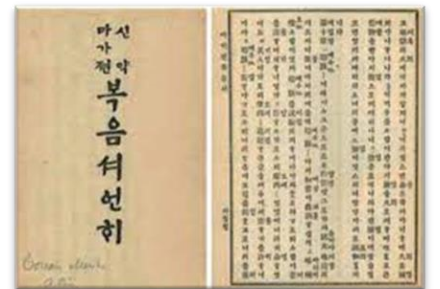
니지마 조 구 저택에 들어서고, 이수정의 친필휘호를 찾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일본인들 앞에서 한국어로 공중기도를 올리고,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이수정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글귀의 내용을 확인할 때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신앙으로 이끈 산상수훈의 족자를 볼 때에도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음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 일본 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발자취를 밟게 하시고, 또 다시 한 번 사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수정(한복)



▲이수정의 번역 성경



▲이수정의 친필 휘호



▲ 이수정을 신앙으로 이끈 것으로 추정되는 산상수훈

기도해주세요!

1. 코로나 속에서도 보호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2.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예배가 성령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3. 일본인들이 속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4. 니시카와상과 아기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순산하도록(22년 5월 예정)
5. 교회 사택으로 예비된 곳을 인도해주시고, 이사과정이 순적하도록
6. 2022년의 모든 사역을 주님의 뜻대로 계획하며, 인도함을 받도록

☎ 후원안내

- 연락처 : 080-4188-2604
070-4226-3122
- 이메일 : directed@naver.com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